

쑹카빠의 『秘密集會安立次第論註釋』에 나타난 티벳밀교의 과제*

정성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BK21 연구교수

I. 서언

II. 문헌의 밀교성립사상 위치

1. 『안립차제론』의 밀교사상 위치
2. 쑹카빠와 문헌의 티벳불교상 평가

III. 교리및 수행상의 역사적 문제

1. 主尊에 나타난 밀교유파의 분석
2. 大樂사상과 微細瑜伽

IV. 道次第와 Bardo Thödrol

V. 결어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BK21 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인도밀교의 성립사 가운데 인도후기밀교의 주류를 이룬 불교탄뜨리즘의 이론과 수행의 기초를 마련한 Jñānapada의 역할이 컸으며, 이를 다시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수행체계로 완성하는데 龍樹 수행유파가 공헌하였다. Nagabodhi는 용수유파를 계승하면서 용수류가 남긴 양차제의 성취법을 토대로 『秘密集會安立次第論』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Nagabodhi는 인도후기밀교의 정비된 수행체계로서 양차제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10세기 후반에 논의되었던 탄뜨라의 다양한 논의들을 반영시켰다. 이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 자연의 실체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탄뜨라의 논리에 의해 보다 실증적으로 접근해보려는 시도이며, 여기에는 유심론으로 치우쳤던 대승불교의 조류에 대해 심식과 외계를 本初佛(Adi-buddha)이라는 궁극적 원리로 통일하려는 의욕도 반영되었다. 쩡카빠는 Nagabodhi의 이론들을 다양한 전거를 들어 증명하고 옹호하고 있다. 쩡카빠의 『安立次第論註釋』은 그가 『보리도차제론』과 『비밀도차제론』의 양부 대작을 저술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티벳불교의 겐룩과

의 밀교 뿐만 아니라, 티벳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밀교의 다양한 이론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제어-----

밀교, 단뜨리즘, Nagabodhi, 쯡카빠, 티벳밀교, 중유, 본초불

I. 서언

인도불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란다대학을 비롯한 인도 사원대학의 유적은 밀교가 인도불교 최후의 시기까지 번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불교는 13, 4세기경 본토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인도불교는 티벳에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실제 티벳불교는 사라진 인도불교의 계승자가 되었다. 인도불교는 티벳과 접촉하면서 무수한 경론과 스승들이 양국을 오가면서 밀교를 티벳에 전했고, 티벳밀교는 인도밀교를 충실히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밀교해석을 시도하고, 티벳사회에 적합한 실용적 밀교수법을 구축하려 노력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주제는 무상유가부 밀교 가운데 용수류의 生起次第(utpatti-krama)와 究竟次第(utpanna-krama) 주석과 더불어 중요시되는 것으로 Nagabuddhi의 『秘密集會安立次第論』(이하 『안립차제론』)에 대한 쯡카빠의 주석이다. 본 주석은 쯡카빠에 의해 후기밀교의 교학을 정비하면서 밀교 내부의 교학뿐만 활발제

도를 비롯해 티벳의 독특한 불교사회를 완성하는데, 적지 않은 근거를 제시한 문헌이라 생각된다. 본 주석을 통해 인간세계의 존재와 죽음, 탄생을 설명함과 동시에 원력을 지닌 보살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 인간계에 轉生하는 메카니즘이 적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다. 『안립차제론』에는 용수류의 등장 이후 인도 후기밀교가 요구했던 밀교 유가행의 새로운 관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비밀집회만뜨라』의 성립 이후 인도밀교에서 주어졌던 밀교적 과제와 그 전개가 반영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립차제론』의 쯡카빠 주석과 용수류의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성취법(Sadhana)을 비교하면서 이들 주석과 성취법이 지닌 인도밀교와 티벳밀교의 역사적 문제를 다루려 한다. 용수류의 양차제 성취법은 『성취법약집』(Piṇḍikrama, Toh., Toh.(東北目錄) No. 1796)과 『오차제』(Pañcakrama, Toh, No.1800)이 대표적이다. 용수류는 Jñanapada가 세운 양차제의 기초를 계승해 인도 후기밀교의 전개의 교리와 수행체계의 초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티벳밀교의 역사와 관련해 쯡카빠가 『안립차제론』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를 내린 부분들을 더불어 고찰해볼 것이다.

II. 문헌의 밀교성립사상 위치

1. 『안립차제론』의 밀교사상 위치

『안립차제론』의 저자인 Nagabuddhi는 동북인도 벵갈의 Sibsera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밀교의 아사리인 용수부자의 제자이다. Nagabuddhi는 13부에 달하는 후기밀교의 주석이 전해지는데, 중관의 학장 용수보살의 제자인 Nagabodhi와 동명인 것은 중관사상을 중시한 비밀집회만트라 용수류 유파의 전통 때문이다. 때문에 중관학장인 용수보살과 Candrakirti(月稱), Deva(提婆) 등이 있는 것처럼 10세기 이후 활동했던 밀교의 용수류에도 Candrakirti와 Deva, Nagabuddhi와 같은 동명의 전승자들이 있다. Nagabodhi가 중관학파의 용수의 제자였던 것처럼 실제 『안립차제론』의 저자는 용수의 제자의 명호를 가탁함으로써 자신의 저술이 용수의 저작인 양 성취법 이후에 전개된 작품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9세기경 활동한 아사리로서 후기밀교의 주요한 대부분의 이론을 정비한 즈나나빠다 보다 용수부자 유파는 100여 년 후에 등장하였고, 용수류에 이르러 인도 후기밀교의 수행체계는 생기차제¹⁾와 구경차제²⁾의 양부조직으로 확립되어 각각의 수행차제에 대한 많은 성취법들이 저술되기에 이르렀다.

1) 생기차제의 용수류 성취법인 『성취법약집』에는 생기차제가 다음의 세 차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초가행삼마지(初加行三摩地, Ādi-yoga-samadhi)
2. 만다라최승왕삼마지(曼荼羅最勝王三摩地, Maṇḍala-paramarāja-samadhi)
3. 갈마최승왕삼마지(羯磨最勝王三摩地, Karma-paramarāja-samadhi)(酒井眞典, 『チベット密教教理の研究-秘密集會龍樹系』(圖書刊行會, 1997), pp. 12-17.).

2) 『오차제』는 다음의 다섯 차제로 구성되어 있다.

1. 금강염송차제(金剛念誦次第, vajra-japa-krama)
2. 심청정 차제(心淸淨次第, citta-visuddhi-krama)
3. 자가지차제(自加持次第, svadhithana-krama)
4. 낙현각차제(樂現覺次第, sukha-abhisambhddhi-krama)
5. 쌍입차제(雙入次第, yuganadbha-krama)(정성준, 『秘密集會만트라의 修行體系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p.218-219 참조).

『안립차제론』에 나타난 수행체계 전체의 요약을 인용하면, “누군가 깨닫는 것은 삶과 죽음 중유 세 가지를 「부처님의」 삼신의 자성으로 전면케 하는 것으로 최고의 탁월한 방편은 길상비밀집회판뜨라이다.”³⁾라고 설해져 있다. 이것은 용수류의 성취법에 보이듯 양차제의 조직을 삼신에 대한 불성으로서의 轉變으로 확립한 용수류 이후의 주석을 계승하는 것이다. 『안립차제론』에서 설해진 내용을 주제로 과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 존재세계의 생성이론과 수습

a. 器世間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과 수습

b. 有情世間の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이론과 수습

㉠ 中有의 成就

㉡ 生有의 托胎

B. 肉身曼荼羅의 안립차제

C. 만다라 生起의 안립차제: 生起次第

D. 勝義만다라의 안립차제: 究竟次第

『안립차제론』의 내용을 용수류의 생기차제 성취법인 『성취법약집』과 구경차제 성취법인 『오차제』와 비교하면 그 구성면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양차제와 『안립차제론』의 주목할 차이는 안립차제는 양 차제를 묶어 통일된 수행차제를 구성한 것이고, 또한 기세간의

3) 『安立次第의 註釋인 吉祥秘密集會의 要義를 밝히는 것이라 이름 하는 저서』(이하 『안립차제주석』)(Toh., No.5290, fol.2a).

생성과 증유, 생유의 탁태에 대해 이전의 양차제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는 점이다. Jñānapada가 생기차제와 구경차제를 독립된 수행체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용수류는 양차제가 지닌 차별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안립차제론』의 내용 가운데 A-C의 단계는 사실상 생기차제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A-B의 과정은 기세간과 인간의 존재가 구현되는 현실세계를 설명한 것이고, 반면 C-D의 과정은 현실세계로부터 해탈을 도모하는 수행의 과정이다. 따라서 『안립차제론』은 크게 존재의 현실(A-B)과 수행(C-D)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양 차제를 통일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립차제론』을 통해 Nagabodhi는 생기차제와 구경차제를 포함해 후기밀교의 간결한 수행체계를 제시하려 시도한 점이 엿보인다. 용수류 전통의 성취법인 『성취법약집』과 『오차제』을 비교해볼 때, 『안립차제론』에는 외계적 실체로서 기세간과 탄생과 죽음의 영역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구사론』을 인용해 기세간의 구조를 밝히고,三界와 三有에 대해 그 空性を 思惟를 수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논에는, “識의 主人 大持金剛이 有情世間을 生起하기 때문에 器世間을 생기한 다음에 衆生界를 반드시 생기해야 한다.”⁴⁾라고 하였고, 『성취법약집』을 인용해 “허공계의 중앙에 존재하는 두 Hum과 Yam 종자로부터 출생하는 금강을 바르게 갖추어 風輪을 수습한다”⁵⁾

4) Toh. No.5290, fol.5a.

5) 北村太道, 출토타상공역, 『비밀집회안립차제주석』(永田文昌堂, 1990).

라고 하여 외계와 식의 기초에서 설해진 관상법을 볼 수 있다.

『안립차제론』에는 기세간이 심식을 통해 구현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외계의 존재로서 기세간에 대해서는 초기불교의 경우 梵天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설해져 있으며, 대승불교 시대에는 유식사상에 의해 기세간에 대해서 唯心所造의 논조가 전개되었다.

『안립차제론』은 Nagabodhi와 더불어 중관사상을 지지하는 용수류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지만, 기세간과 대상적 실체로서 인간의 출생과 죽음을 현상적으로 강조한 것은 外界에 대해 實有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유파의 입김도 다소 작용한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밀교의 경우 法身이나 本初佛(Adi-buddha) 등 새로운 佛格을 제시하여 외계와 심식을 아우르는 통일된 세계관으로서 기세간을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밀집회만뜨라』의 성립 이후 인도후기밀교가 다양한 만뜨라의 성립을 통해 인간의 육신과 기세간의 관계를 밝히고, 천문이나 의학과 만뜨라의 지식을 연계시키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 쯙카빠와 문헌의 티벳불교상 평가

『안립차제론』을 주석한 쯙카빠 룽상닥빠(Tshong kha pa blo bzang grags pa, A.D.1357-1419)는 티벳의 겔룩빠(dGe lugs pa)를 연 개조이다. ‘黃帽派’라고도 알려진 겔룩빠는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는 파’를 의미한다. 쯙카빠는 현교와 밀교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밀교의 도차제를 정립한 것으로 『秘密道次第廣論』(sNgags

rim chen mo)이 유명하다. 티벳의 동부 압도지역에서 태어난 쯡카빠의 수학 배경은 因明과 中觀, 俱舍, 唯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론을 갖추었다. 특히 미륵의 『現觀莊嚴論』과 아미샤의 『菩提道燈論』의 수학은 훗날 『菩提道次第廣論』의 직접적인 저술동기가 된다.

쯡카빠의 밀교와 관련된 저작은 무수히 많은데, 논문에서 다루는 생기차제 성취법의 『성취법약집』과 구경차제의 『오차제』에 대한 주석도 전해진다. 쯡카빠는 밀교를 4부 단뜨라로 나누는 부편의 교학을 계승하면서 쯡카빠는 인도불교에서 성립된 방대한 밀교경전에 대해 주요한 주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최후에 『비밀도차제론』을 통해 사실상 인도밀교의 교학과 수법을 집대성 하여 현밀을 아우르는 티벳불교의 교학과 수법체계의 기준을 완성하였다.

『안립차제론』에 대한 쯡카빠의 주석은 『安立次第의 주석인 吉祥秘密集會의 要義를 밝힌 책』(Toh. No.5290)이라는 이름으로 티벳인의 저작문집에 속하여 전해지고 있다.

티벳불교의 입장에서 양차제의 관련주석보다 『안립차제론』에 대한 주석이 선호되는 이유는 그 교의가 간략하고 실천적이기 때문이다. 『안립차제론』은 석가모니 붓다의 12지연기와 더불어 『俱舍論』의 法數論이 적절히 혼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쯡카빠는 『안립차제론』의 주요한 용수류의 이론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양차제에 대해서 다수의 주석을 남기고 있다.

쯡카빠는 『안립차제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일체여래의 신어의인 흑색 야만따까라 이름하는 탄뜨라』⁶⁾에는, “탄뜨라의 최고는 비밀집회이다. 일찍이 존재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 출현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문수사리의 구전』⁷⁾ 가운데에서도, “일체여래의 집회인 탄뜨라이며, 대비밀 중의 대비밀이며, 무상의 대성교이다”라고 설해져 있으며, 『등작명』⁸⁾에서도, “자음의 문자의 최후에 존재하는 탄뜨라의 모든 것을 설한 모든 가르침의 근본도 Sa · Ma · Ja의 문자에 의해 설해질 수 있는 것은 『비밀집회탄뜨라』이며, 일체 경전의 그릇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전의 최고봉이라고 설해지는 것이다.”라고 설해져 있다.⁹⁾

종카빠의 『비밀집회탄뜨라』에 대한 평가는 이후 티벳불교 겐룩과의 전통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밀집회탄뜨라』에서 제기된 탄뜨라의 과제들이 이후 인도 대승불교의 역사를 판가름할 만큼 너무나 확고한 이론과 수행체계를 정립했기 때문이며, 이후 대부분의 탄뜨라도 『비밀집회탄뜨라』의 기본골격을 따른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III. 교리및 수행상의 역사적 문제

1. 主尊에 나타난 밀교유파의 분석

6) Toh. No.467.

7) Toh. No.1853.

8) Toh. No.1785.

9) Toh. No.5290, fol.2b.

Nagabodhi의 존재가 용수류의 후손을 자처하지만, 용수류의 전통에 더해진 다른 수행유파의 영향이 그의 『안립차제론』에 보인다. Nagabodhi의 유파적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비밀집회계의 수행유파임에도 불구하고, 용수를 비롯한 다른 중관파 학장들의 명호를 차용한 것이다. 또한 『안립차제론』의 초두에서 그가 문수보살에 대해 올리는 예경은 Jñanapada로부터 개시된 문수금강에 대한 예경과 일치한다. Jñanapada의 주요 저작으로 『大口傳書』¹⁰⁾가 있는데 그가 문수보살의 화신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Jñanapada의 주요 생기차제 성취법인 『보현성취법』에서 광명차제로부터 생기하는 주존은 압음(yab-yum)의 모습을 한 문수금강이며,¹¹⁾ 구경차제 성취법인 『육지유가』에서도 생기차제의 관상대상은 『비밀집회만트라』의 주존인 아축금강이 아니라 문수금강이다.¹²⁾

Jñanapada 유파에서 『비밀집회만트라』의 주존이 달리 모셔지는 이유는 Jñanapada가 『비밀집회만트라』를 저술한 유파로부터 직접적 전승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 사실을 보여준다. 그 스스로 독자적인 수행체계를 완성한 것에 이유가 있다. 그는 처음에 복인도인 Odiyāna에서 릴라바즈라로부터 소작, 유가만트라와 母만트라를 배

10) Toh, 1853.

11) Toh, 1855, fol. 31a4-31a6.

12)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器世間の 만다라를 지닌 세존문수금강을 요별하는 것이 喜이다.

이것을 견고히 하는 것이 伺이다.

伺로써 본존의 자성을 관연하는 것이 喜이다.

喜를 수습함으로써 본존의 마음을 집지하는 것이 樂이다.

樂을 지니는 마음이 삼매로 전변하여 샅된 세속의 일체에 대해 무지의 분별이 생하지 않고, 탐욕의 본존만을 관연하는 마음을 心一境性이라고 한다.

(이상) 정리는 다섯 가지로 이것은 생기차제이다. (Toh, 1901, fol. 287a5-287a7).

우고, 남쪽에 내려와 빠릿다빠다로 방편단뜨라를 배우려했으나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중인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스스로 문수보살의 계시에 의해 깨달아 생기·구경의 수법 차제를 완성하고 평생을 밀교의 洪布에 전념했다고 한다.¹³⁾

반면, Jñānapada와 가장 가까운 유파로 추정되는 것은 『성문수진실명의경』을 지지했던 밀교유파의 전통이다. 『안립차제론』에서 Nagabodhi가 귀경의 대상으로 삼는 문수금강은 달리 본초불의 화신이기도 하다. 『안립차제론』에서 문수에 대한 예경장면은 다음과 같다.

자비를 지니신 청정한 존자님들의 발에 예를 올립니다. 저 文殊의 Yum 으로부터 金剛乘의 요점을 여실한 깨달음으로부터 인도되는 안락한 맛으로 인해 유정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阿闍梨 문수의 발에 예를 올립니다. 광명인 하늘의 길로부터 탄생하시고, 雙運의 자재천의 화살과 같이 저 길상 본초불(Adi-nātha)의 작업이신 그대 「유정들을」 수호하는 것처럼 이 최고의 춤꾼이 유정들을 조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각을 맛보도록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당신 신체 부분의 32상의 최고의 바퀴를 현신 하심에 예를 올립니다.¹⁴⁾

원래 본초불은 Adi-buddha이지만, Adi-nātha도 동일한 의미로

13) 羽田野伯猷, 『タントラにおける ジュニャーパダ流について』, 『チベット・インド學集成 第3卷』, (法藏館, 1987.) pp.41-42.

14) Toh. No.5290, fol.2a.

간주된다. 원래 문수보살의 등장은 『聖文殊眞實名義經』¹⁵⁾에서 문수보살의 名號를 나열하는 가운데 등장한다. 이 경전에는 문수보살에 대해 “이처럼 세존이시며, 불타인 정각자는 阿字로부터 출생한다. 아자는 일체문자의 최상으로서 최승의 문자이다. 큰 생명으로서 실로 不生이며 언어의 표현을 떠나있다.”¹⁶⁾라고 하였다.

『성문수진실명의경』의 존재는 본초불사상으로부터 *Kalācakra-tantra*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인도 후기밀교의 경우 『비밀집회만뜨라』와 필적한 만뜨라의 조류는 *Kalācakra-tantra*이며, 여기에는 本初佛이 설해지면서 본초불로부터 기세간인 色과 心の 두 가지 영역이 전개된다고 설해진다. 쯙카빠는 『안립차제론』의 주석에서 기세간조차도 심식의 所變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지만, 외계적 실체로서 기세간과 인체의 만뜨리즘적 해석을 중요시 하고 있다. 『안립차제론』에서 문수보살을 본초불로 해석하는 경향은 전통적인 용수류이 수행차제 해석과는 상이하다.

이상 비밀집회계 문헌에 나타난 주존의 상이점에 대해 쯙카빠는 『안립차제론주석』에서 후대의 주석들이 문수금강과 지금강을 사실상 동일시 한 현실적 이유 때문에 해석상의 큰 장애는 없다고 평가한다. 쯙카빠는, “어떤 라마는 [말하길], “『燈灼明』¹⁷⁾과 『成就法略集註

15) 산스끄리트본은 Minayeff와 Ivan Pavloitch 1887년 출간되었고(Minayeff, Ivan Pavloitch, *Izsledovaniya i Materia Ini*, St. Petersburg, 1887), 한역본은 宋의 施護(『大正藏』20, p.808)와 金總持에 의한 번역(『大正藏』20, p.814), 元의 沙囉巴의 번역(『大正藏』20, p.820)과 釋智(『大正藏』20, p.826)의 번역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산스끄리트문은 梅尾祥瑞의 교정본문(『聖文殊眞實名義經の研究』『遺稿論文集(一)』, 臨川書店 1983)을 참조하였다.

16) 梅尾祥瑞, 『聖文殊眞實名義經の研究』『遺稿論文集(一)』, 臨川書店 1983, p252.

17) Toh, No.1796.

釋寶鬘』에는 阿闍忿怒金剛에 대한 신해를 근본으로 설하고, 『경합집』¹⁸⁾과 월칭(月稱, Candrakirti)은 지금강이라 설하는 교증에 의해 부정하고 이축을 주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 설한다.”라고 하였지만, 이외 다른 성취법의 전거를 들고, 특히 『등작명』을 인용해, “세존 이축금강으로서 대지금강에 의해 이와 같이 설해져 있다.”라고 설해져 있으며, 지금강에 대해 다른 여래들의 명호에 의해 건립된 교설도 많기 때문에 모순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와 관련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 大樂사상과 微細瑜伽

초기 불교수행에 있어 육신은 윤회의 산물이며, 육신을 존재케 한 원인은 有身見을 비롯한 번뇌이다. 열반사상이나 반야사상에 기반을 둔 대승불교의 교리적 발전은 ‘煩惱即菩提’와 같이 중생계의 현실을 진리로 파악하고, 밀교시대에는 이를 수행체계화 하였는데, 이것을 大樂思想(Mahā-sukha)이라 부른다. 붓다가 깨달은 진리인 연기설은 대승불교시대에 반야사상으로 귀결되고, 깨달음을 자각했을 때 동반되는 청정한 현상계가 설해진다. 밀교경전인 『理趣經』에는 반야의 지혜로 육체와 감각의 세계를 볼 때 그 본성이 청정하다는 보살의 깨달음이 설해져 있다. 대략사상은 인도의 후기밀교의 생리이론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비밀집회판뜨라』의 경우 13존 만다라나 용수류의 32존 만다라는 모두 인간의 육체를 진리로

18) Toh, No.1797.

인식하기 위한 관법의 도구이다.

대략사상 전개의 다른 극단적 예는 근본만뜨라에 설해진 『비밀집회만뜨라』의 주존이 자신의 명비인 觸金剛女의 Bhaga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묘사되는 것이다. Bhaga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경전의 설정은 청정한 깨달음의 의식 상태에서 육신을 통해 보이는 일체의 현상을 진리로 관조하는 것이다. 주존의 묘사는 곧 인간의 육체적 현실에 대해서 일체를 불성의 전개로 묘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금강만뜨라』에는, “칠만 이천의 신경가지를 金剛이라고 하며, 보리심이 강하하는 맥관을 蓮華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상합함에 의해 즐거움이 생기하는 것이다.”¹⁹⁾라고 하여 성적인 생리현상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

『안립차제론주석』에서 쯡카빠는 Samputa-tantra를 인용하여, “웃고, 서로 바라보고, 손을 잡고, 두 마리가 포옹하는 네 가지 벌레의 결합이 4부 만뜨라의 존재를 설명한다.”²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밀교가 성립되어 발전한 연속성에 의해 후기 밀교의 父母尊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대략사상의 정점인 부모존의 존재는 상대적 세계가 결합함으로써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적 지혜와 경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즈나나빠다의 경우 『해설영점』에서 “二根의 수습은 나무가 영양이 풍부할 때 꽃과 열매가 생기듯, 두 가지의 인연을 생기함으로써 자신의 상속을 내면적으로 성숙케 하는 것이다. 유가의 꽃은 石女가

19) Toh, No.417, fol.27a7-27b2.

20) 순서적으로 所作만뜨라, 行만뜨라, 瑜伽만뜨라, 無上瑜伽만뜨라가 이에 해당된다(北村太道, p.33).

아니다.²¹⁾라고 한 점에서 진리의 세계가 종교적 가식이나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直視와 관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차제』 가운데 甚深瑜伽는 수행자가 중유로부터 육체적 탄생과정을 만다라의 관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지혜금강집탄뜨라』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Bhaga의) 자성은 탐착이며, (육신의) 탐착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이다. 속제로서는 실제의 여인과 Bhaga와 연화와 여인의 성징이다. 금강과 연화를 청정하게 상합함으로써 반야의 지혜가 출생하고 자신의 금강의 정진으로부터 불과, 불로부터 물이 출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芥子位の 형상이며, 그로부터 疱와 血肉位와 堅肉位 등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탐착을 떠난 현현에는 피와 세포 등이 맺어지는 것이며, 체액과 피가 생기는 것이다.²²⁾

21) Toh. No. 1859, fol. 48b4.

22) Toh. No. 419, 182b7-183a4.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대정장』30, pp. 283a~285a)에는 태아의 발육을 태내8위설(胎內八位說)로 설하고 있다. ① 羯羅藍位: 전생의 중유가 緣을 만나 탁태한 후 7일간의 존재로 凝滯, 즉 ‘응결된 골수’가 생겨난다. 부모의 정혈이 한 덩어리로 합해지면 전도된 인연 및 중유가 소멸되면서 一切種子識의 功能力에 의해 (身根 및 身根의 所依處로부터) 意識(受·想·行·識)이 머물고, 영기고, 생기고, 相續하는 단계이다. 色으로서 羯羅藍과 受想行識으로서 名이 합해 羯羅藍이라 통칭되며, 이때 정신은 阿賴耶識을 중심으로 前七識이 표면화되며, 육체는 지·수·화·풍의 四大가 점차 형성된다. 이때 中有는 소멸되고 本有的 五蘊이 형성되는 까닭에 이때를 生有라 부를 수 있다. ② 額部疊位: 갈라남위에서 형성된, 四大로 인한 육체가 응고되어 ‘얇은 피부’가 생겨나는 단계로, 薄皮라 한다. 풀린 우유에 막이 생기는 것 같이 피부가 생겨나는 것으로, 이는 託生의 제2주에 해당한다. ③ 閉尸位: 알부담위에서 형성된 ‘피부가 견고해지고 혈액이 생기는’ 기간으로, 閉尸는 血肉이라 번역된다. 제3주에 해당한다. ④ 健南位: 폐시위에서 견고해진 피부가 ‘더욱 견고해져 육체가 형성되는 기간’으로 聖肉이라 번역한다. 거의 인간 모습이 갖춰진 상태로, 제4주에 해당한다. ⑤ 鉢羅賒佉位: 四肢와 五臟, 六腑가 형성되는 시기로 支節이라 번역되며, 胎로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직전까지를 포괄하는 단계이다. ⑥ 髮毛似位: 제6주의

이상의 예는 『안락차제론주석』의 경우 Cakrasamvara-tantra를 인용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10개월간의 수태기간의 성장과 정도 밝혀놓고 있다.²³⁾ 또한 수행체계 상에서 대락사상의 전개는 실제 육신을 버리지 않고, 육신을 붓다의 化身으로 직관하는 수행체계의 기반이 되지만, 또한 수행자가 의지적인 육신탄생의 과정을 답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12지연기법과 비교할 경우 이것은 순관에 해당되지만, 후기밀교의 순관은 붓다나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사바세계의 현실에 육신을 구현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다. 12지연기는 밀교적 입장에서 죽음에 의한 인간의 의식해체와 재탄생의 과정이며, 12지연기에 담긴 근본적 의미는 인간 존재의 본성인 깨달음의 상태(明, vidya)를 자각하여 붓다를 구현하는 것이다.

12지연기법의 후기밀교적 전개는 수행자의 육신내부에 존재하는 風과 心識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습하는 것이다. 풍은 4대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육신을 지탱하며, 생체계를 순환케 한다.²⁴⁾

태아를 말하며, 모발과 손톱 등이 나타나므로 髮毛似位라 부른다. ⑦ 根位 : 제7주의 태아로 眼根과 耳根 · 鼻根 · 舌根 · 身根 등 五官이 형성되며, 段肉이라 한다. ⑧ 形位 : 제8주부터 이후 출산 때까지를 포괄한다. 이때 태아는 인간의 형태가 분명해진다. (정각(正覺)스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대승불교에 있어 출생과 죽음의 과정에 대한 記述」, 『불교학연구』제15집 p.12에서 재인용.)

23) 北村太道, p.69.

24) 『유가사지론』에는 풍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本地分中聲聞地」『瑜伽師地論』권27(『대정장』30, 430a), “云何風界 風界有二 一內二外 內風界者 謂此身中內別風性 風飄所攝輕性動性 親附執受 其事云何 謂內身中有上行風有下行風 有脊臥風 有脊臥風 有腰間風 有臆間風 有小刀風 有大刀風 有針刺風有畢鉢羅風 有入出息風有隨支節風 如是等類名內風界 外風界者 謂外風性 風飄所攝輕性動性 非親附非執受 其事云何 謂在身外 t30, 430상)有東來風有西來風 有南來風有北來風 有有塵風有無塵風 有狹小風有廣大風 有毘濕婆風有吠藍婆風 有風輪風有時大風 卒起積巢折樹頽牆崩山蕩海 既飄鼓已無所依憑自然靜息 若諸有情欲求風者 動衣搖扇及多羅掌 如是等類名外風界”.

풍은 인체에 맥관을 통해 흐르며, 맥관은 大輪[Cakral을 형성하여 인체의 감정, 소화, 배설 등의 생리작용을 주관하게 된다.²⁵⁾

풍의 인식은 띠라카의 존재에 의해 가능해진다. 띠라카는 유가행과의 수행에서 코나 미간에 의식을 집중하는 점을 가리키는데, 이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현상 때문에 띠라카는 ‘靈點’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띠라카를 응용한 불교 띠뜨라의 수행을 미세유가(微細瑜伽, Sukṣuma yoga)라고 부르며 그 원초적 형태는 六支瑜伽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⁶⁾ 육지유가는 인도 요가수행인 팔지유가에서 유사한 전통을 찾아볼 수 있지만, 불교 띠뜨리즘에서 시도된 육지유가는 철저히 대승불교의 유가행의 영역에서 새롭게 재해석된 것이다.²⁷⁾

25) 酒井眞典은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대개 인체의 생명은 호흡으로 인해 지속되는 것으로 호흡을 風(vayu)이라고 부르며 인체의 血脈運行的 활동력이다. 이 풍에는 根本과 支分の 五風이 있고, 합치면 十風이 된다. 이 작용에 대해 근본인 初風은 호흡으로 인해 生命維持의 新陳代謝를 하고, 支分の 오풍은 신체내의 세밀한 부분에 까지 순행하여 根本風의 활동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풍이 호흡하여 단전에 들어가고 혈액과 융합함으로써 인체의 불이 탄다. 이로 인해 음식물의 消化와 吸收와 排泄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인체의 활동이 성립하는 것이며, 이 운행과 관련하여 풍의 유가와 단전의 유가를 수행하는 것이다.”하여 풍이 후기밀교 생리학설의 근간이 됨을 알 수 있다. (酒井眞典, 『チベット密教教理の研究-秘密集會龍樹系』(圖書刊行會, 1997), p.111).

26) 『속띠라』에는 이에 대해 “조집(調集)과, 또한 정려(靜慮)와 조식(調息)과 집지(執持)와 억념(憶念)과 삼마지(三摩地)를 (6지)유가라고 말한다.”(GST[M](XVIII, p.123), “pratyāhāras tathā dhyanam prāṇayāmo ‘tha dhāraṇa/ anusmṛtiḥ samādhiḥ ca ṣaḍaṅgo yoga ucyate/141”).

27) 육지유가는 후대에 성립된 이용현은, “칼라차크라는 인도나 티베트 불교에 있어서 소위 ‘키류 논증 중관(Prāsaṅgika-Madhyamaka)’과는 달리, ‘자립논증파(Svāntarika-Madhyamaka)’나 ‘유가행중관파(Yogācāra-Madhyamaka)’처럼 세속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칼라차크라의 가장 큰 특징은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의 교학들을 변형, 혹은 ‘탈구축(deconstruction)’시켜 세속 진리인 웅대한 체계를 건설했다는 데에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칼라차크라의 수행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당가 요가도 예외가 아니다. 즉 칼라차크라의 사당가 요가에 있어서는 비밀집회 전통의 사당가 요가가 ‘탈구축’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이용현, 「칼라차크라 만다라에 대한 문

『비밀집회탄뜨라』의 釋탄뜨라의 하나인 『智慧金剛集탄뜨라』에는 다음과 같이, “識의 운반체는 風이다. 풍으로부터 불이 있으며, 불로부터 물이 있으며, 물로부터 흙이 있다. 이들로부터 5온과 6처와 5경이 생긴다. 이들 모두는 식이 풍과 결합한 것이다.”²⁸⁾라고 하여 個我的 영역의 육신과 의식이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오차제』에는, “모든 유정들의 생명은 風이라 이름 하는 것에 의해 일체의 사업을 이룬다. 이것은 識의 운반체로서 다섯 가지의 자성과 열 가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다섯 자성과 열 가지 이름은 五根과 五境에 다름이 아니다.

이것은 후대에 해결된 탄뜨라의 과제를 『안립차제론주석』에 인용함으로써 『안립차제론』이 성립될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들과 비교하는 쯡카빠 주석의 독특한 기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道次第와 Bardo Thödrol

Nagabodhi는 『안립차제론』에는 『비밀집회탄뜨라』 관련유과의 모든 이론들을 간략한 수행차제로 정비하였다. 쯡카빠는 주석에서 Nagabodhi가 전개한 이론들을 여러 주석을 인용해 증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쯡카빠의 인도밀교에 대한 대 저작은 『비밀도차제광론』이지만, 『안립차제론』에 대한 그의 주석은 바라밀승의 현교와 밀교

현학적, 도상학적, 해석학적 시론(試論) (한국불교학 발표논문 2009에서 인용).

28) Toh. No. 419, fol. 182b.

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아우르는 수행차제의 입장을 간략히 밝히고 있다. 쯙카빠는 『보현성취법』²⁹⁾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이 몸은 실로 무상한 것이며, 세간 사람들 바른 사람 만나는 것 어렵다. 이 때문에 지혜와 방편에 정진하여 사유하여 이 수승함을 성취해야 한다. 여기서 진언행지는 자비의 힘에 의해 최고의 보리심을 발하는 것과, 보시 등의 모든 공덕으로 장엄하여 심오한 도리들을 墿上信解하여, 길 상비밀집회만다라의 위계에 의해 자신의 원만한 관정을 갖추고 위계에 따라 인가를 받은 스승에 의해 구해자에 의해 자신의 진언을 기뻐해야 한다.³⁰⁾

라고 하였고, 또한 Jñānapada의 『口傳, Mukhagama』³¹⁾을 인용해,

이처럼 단단한 水輪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신어의에 정진함을 내어 次第에 앞선 순서대로 모두 성취해야 한다. 이 몸을 실로 변하기 쉬워, 마치 바람에 의해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찰나에 머무름 없이 시간은 흘러 간다. 이 때문에 이것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실체에 대해 수승한 대진리를 알려 노력해야 한다.³²⁾

라고 하였다.

29) Toh. No.1855.

30) Toh. No.5290, fol.3b.

31) Toh. No.1855.

32) Toh. No.5290, fol.3b.

이상 두 가지 주석의 인용은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신해와 보리심의 기초 위에 밀교를 수행해야 한다는 顯密兼修의 입장을 쫓카빠가 지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쫓카빠는 밀교의 『비밀도차제론』 외에 현교와 관련해 『보리도차제론』이라는 방대한 도차제의 저술을 남겼고, 『보리도차제론』에서 현교를 밀교수행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립차제론주석』에서, “이러한 道次第는 모든 경전이 진리임을 알려주기에 크게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이전에도 『보리도차제론』³³⁾에서도 자세히 설했으며, 또한 진언(도)에 부합하는 다른 문헌에서도 주석하여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한다.”³⁴⁾라고 하였다. 쫓카빠는 밀교수행에 대해서는 『속판뜨라』³⁵⁾를 인용해, “제불이 법에 대해 설하신 것은 이차제에 바르게 담겨있는 것으로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등작명』³⁶⁾을 인용해 수습해야 할 도는 양차제라고 정의하였다.³⁷⁾

이상 쫓카빠가 정의한 후기밀교의 수행 외에 티벳사회를 지배한 밀교적 지식은 삶과 죽음, 재탄생과 『死者의 書』와 같은 현실적 해석들이다. 십이지연기법³⁸⁾과 비교하면 생기차제는 십이지연기법의

33) Toh. No. 5392.

34) Toh. No. 5290, fol. 3b.

35) Toh. No. 443.

36) Toh. No. 1785.

37) 양차제를 요약하면 후기밀교의 수행은 붓다의 法身, 報身, 化身마저도 인간의 죽음과 중음, 육신에 대비해 깨달음의 경지에서 볼 때 그 자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설한다. 양차제를 통해 설해진 이론과 수행을 요약하면 수행자의 육체와 중음, 죽음을 붓다의 화신, 보신, 법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생기차제는 붓다가 법신으로부터 보신, 화신의 순서로 佛身을 전개하는 과정이며, 구경차제는 반대로 붓다가 화신을 서두어 보신, 법신의 순서대로 본체광명에 귀입하는 것이다.

38) 십이연기의 내용(無明→行→識→名色→六入→觸→受→愛→取→有→生→老死)과

順觀에 해당되며, 구경차제는 逆觀에 해당된다. 양차제 가운데 생사의 전생에 필요한 무명 이후 생사의 전개과정은 후기밀교에 있어 인간의 육체적 전생과 함께 반대로 재탄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것은 10세기 전후에 성립된 『死者의 書, Thödrol』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안립차제론주석』에는 중유로부터 태에 드는 과정이 설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중유의 상태에서부터 性交를 진행하고 있는 부모의 자궁에 드는 과정, 그리고 육신이 형성되는 절차가 다루어지고 있다.³⁹⁾

Padmasambhava에 의해 저술된 『사자의 서』에는 인도 후기밀교의 정비된 이론들이 사자의 사후의식과 결합되어 의례화 되어 있다. 후기밀교에 등장하는 죽음과 재탄생의 이론과 수법은 티벳불교에 대해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추상적인 교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전의 현실에 수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인 것이다. 唯識思想과 관련해 轉識得智는 범부의 의식인 八識을 붓다의 四智로 전환하는 것이다. 유식학에서는 붓다의 몸을 三身으로 나누고 후기밀교에서는 범부의 영역인 죽음과 중유, 육신이 붓다의 범신, 보신, 화신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유는 재탄생의 방향기가 아니라 붓다의 보신을 성취하는 기회가 된다.

중유를 보신으로 구현하는 수행은 『사자의 서』에서 臨死者가 자신의 육신과 의식이 소멸되는 과정을 관조하면서, 의식을 놓치지 않고, 범신을 포착하여 열반에 드는 것으로 나타낸다. 『사자의 서』에

순관, 역관의 출처는 『雜阿含經』(『대정장』2, 67상) 참조.
39) 北村太道, pp.66-69.

담긴 내용은 『비밀집회판뜨라』의 경우 32존 만다라⁴⁰⁾와 각 제존의 종자를 자신의 몸에 배열하고, 그 종자가 범신인 광명으로 용해되는 과정을 순서적으로 관상하는 것에 해당된다. 『성취법약집』에는 “유가자는 3종자로서 또한 월륜의 중앙에 수념해야 한다.”⁴¹⁾라고 설해져 있는데, 3종자는 수행자의 중유에 존재하는 의식과 띠라까, 풍을 말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종자를 관하는 것은 종자를 통해 중유의식을 통해 중유에 존재하는 중음신의 인식이다. 즉 중음신의 상태에서 육신에 버금하는 순환계가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범신광명에 대해서는 『성취법약집』에서 “이것은 의식이며, 또한 광명이라 한다. (또한) 열반, 일체공, 혹은 범신이라고도 설해진다.”⁴²⁾라고 하였다. 다른 성취법인 『경합집』에는 “본 경전에 「허공계의 중앙에 머무는 지혜의 바다를 수념한다」라고 설한 것은 지혜의 바다가 형태에 따라 전변함을 뜻한다.”⁴³⁾라고 하였다. 이것은 중생의

40) 『성취법약집』에 설해진 만다라의 관상은 5佛과 4明妃, 5金剛女와 8大菩薩, 그리고 10忿怒가 차례대로 설해지고 있다. (① 5불: 明妃를 동반한 自性尊은 三面六臂의 像이다. 인다라이라의 빛과 같이 한 것으로 曼荼羅의 中央에 修念한다. 毘盧遮那와 寶生과 無量光과 羯磨王을 三面六臂와 같이 東을 시작으로 하는 方向을 修念한다. ② 4명비: 痴와 喜를 시작으로 明妃도 三面六臂의 像을 하고, 火(東南)의 方向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례와 같이 結正코 建立한다. ③ 5금강녀: 이와 같이 色金剛女등을 바깥의 네 공간에 자리하고, 觸金剛女등은 金剛薩埵와 함께 머문다. ④ 8대보살: 彌勒과 地藏의 두 분을 東의 周邊에 建立하고, 金剛手와 虛空藏을 持戒者는 남쪽에 建立한다. 또한 世自在와 文殊師利를 서쪽에 建立하고, 除皆障과 普賢을 北方에 안치한다. ⑤ 10忿怒: 야만타가를 東門에 無能勝을 南方에, 서방에 馬頭를 두고, 甘露軍荼利는 北에 둔다. 不動과 欲王과 니라간타와 大力을 東門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례와 같이 修念하고, 送婆大王을 그 아래에 修念하며, 頂轉輪王을 또한 그 위에 修念해야 한다. (Toh, No.1797, 3a2-3a6).

41) Toh, No.1797, fol.4b7-4a1.

42) Toh, No.1797, fol.3b3-3b4.

43) Toh, No.1797, fol.12a7-12b1.

본성, 또는 명의 존재가 의식의 바다, 또는 광명의 자성임을 말하는 것이다.

『안립차제론주석』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종카빠는 『비밀집회만뜨라』 외의 후기밀교 논전을 인용하면서 부파불교와 유식학의 전개 를 통해 다루어졌던 전통적 지식을 인도 후기밀교에 입각해 전개시 키고 있다. 실제 후기밀교 수행의 실재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만, 후기밀교시대에 전개되었던 법신과 인간의 생사, 그리고 중유라 는 새로운 해탈의 영역을 모색한 것은 티벳사회를 종교적으로 지탱 하는데 후기밀교가 많은 이론적 단서를 제공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어

티벳사회에 끼친 밀교적 영향 가운데 하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사회를 티벳의 현실사회에 구현하는 것이다. 초기불교의 시각에서 재탄생은 반감지 않은 현상이지만, 대승불교 경전에는 보살이 중생 구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인간세간에 환생한다는 교설이 밝혀져 있다. 수용신이나 화신을 통한 보살들의 자의적인 재탄생은 밀교의 교학을 통해 실현되는 주요한 사상으로 중세이후 티벳사회가 형성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인도불교 최후의 시기를 장식한 후기밀교는 부퓌(Bu ston)에 의 한 밀교의 교학적 분류에 입각해 無上瑜伽部 밀교가 그 중심을 이루 고 있다. 실천적 경향이 강한 밀교에 대해 그 교리적 단서를 제공한

것은 사실상 중관, 유식을 비롯한 논리적 교리체계이다. 때문에 인도 대승불교나 티벳불교는 체험과 논리의 양날의 정비된 수행체계를 갖추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인도밀교가 티벳에 유입될 때 세밀한 교리적 검토에 의해 그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추측케 한다.

인도후기밀교의 수행은 『비밀집회만뜨라』를 연구하는 즈나나빠다를 비롯한 많은 수행유파에 의해 성립되었다. 『비밀집회만뜨라』의 수행유파 가운데 즈나나빠다는 인도후기밀교 형성에 필요한 주요한 이론들을 관련 저작을 통해 남겼다. 특히 즈나나빠다의 微細瑜伽 연구는 후기밀교의 수행을 중유성취와 육신성취로 이끈 주요 이론이기에 특히 중요하다.

즈나나빠다 유파의 만뜨라 수행이론들을 후기밀교의 정비된 수행체계로 완성한 것은 용수류이다. 용수류의 전통 가운데 Nagabodhi가 저술한 『안립차제론』은 새롭게 전개된 만뜨리즘의 조류를 반영하면서, 기존의 비밀집회의 전통을 보다 간결하고 현실적인 수행체계로 정비하였다.

『안립차제론주석』에서 쯡카빠는 전통적인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양대 수행을 허물지 않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시킨다. 반면 수행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세간과 죽음을 맞은 후 전개되는 중음의 상태, 그리고 재생을 위한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자신의 이론을 편다. 이것은 쯡카빠가 인도 후기밀교의 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된 밀교수행을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Nagabodhi에 의해 저술된 『안립차제론』에 대한 정비된 후기밀교의 주석은 티벳인들에게 붓다의 세계가 인간의 현실에 격

의 없이 등장하고,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높은 수행과 서원을 갖춘 보살들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티벳사회를 지배하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雜阿含經』(T.2).
- 『瑜伽師地論』(T.30).
- 『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教王經』(T.18).
- 『佛說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T.18).
- 『秘密集會탄뜨라』(Toh.No.747).
- Jñānapada, 『二次第眞實性修習이라고 이름하는 口傳』(Toh. No.1853).
———, 『Mukhagama』(Toh. No.1854).
———, 『普賢成就法』(Toh. No.1855).
———, 『解説靈點』(Toh. No.1859).
- Nagarjuna, 『成就法略集』(Toh. No.1796).
- Candrakirti, 『六支瑜伽하고 이름하는 註釋』(Toh. No.1786).
- 龍樹, 『五次第』(Toh. No.1800).
- Yukei, Matsunaga, The Guhyasamāja Tantra:A New Critical Edition(Osaka, 1978).
- 『安立次第의 註釋인 吉祥秘密集會의 要義를 밝히는 것이라 이름 하는 저서』(Toh., No.5290).
- 小野清秀, 『密教經典成立史論』(京都, 法藏館, 1980).
- 鄭承碩譯, S. B. Dasgupta著, 『탄뜨라불교입문』(民族社, 1991).
- 梶尾祥瑞, 「聖文殊眞實名義經の 研究」 『遺稿論文集(一)』(臨川書店 1983).
- 北村太道, 출탑꺽상공역, 『비밀집회안립차제주석』(永田文昌堂, 1990).
- 羽田野伯猷, 「秘密集會タンオラにおけるチニヤ-ナバダについて」(『日本

佛教學年報』제16호, 1950).

———, 「タントラにおける ジュニャーパダ流について」, 『チベット・인도 學集成 第3卷』, (法藏館, 1987).

- 酒井眞典, 『チベット密教教理の研究-秘密集會龍樹系』(圖書刊行會, 1997).
- 이용현, 「칼라차크라 만다라에 대한 문헌학적, 도상학적, 해석학적 시론 (試論)」(한국불교학 발표논문 2009).

A Subject of Tibetan Esoteric Buddhism shown on
the Note of Je Tsong kha pa's Commentary on the
Guhyasamaja-tantra's practice system by Nagabodhi

Cheong, Seong-joon

Dongguk University

Buddhist dpt. BK21 Research Professor

The foundation of latter period Esoteric Buddhism which was pervasive over the last period of Indian Buddhism was Tantric Buddhism, which was named Anuttarayoga Tantra by Buston who was an eminent scholar of Tibetan Buddhism in 14th century. It is a systematic logics of Madhyamaka and Cittamatra etc. that provided Esoteric Buddhism with a fine doctrinal system, so that Indian Mahayāna Buddhism and Tibetan Buddhism as its successors are equipped with dual practices and doctrines which in fact enabled Tibetan Buddhism to have traditions of importing Esoteric Buddhism with careful examination of doctrinal validity.

The practice system of latter period Esoteric Buddhism was established by many schools like Jñānapada's and Nagarjuna's sects whose research was oriented with *Guhyasamāja-tantra*. The Jñānapada school left many works on Buddhist Tantras

that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India's latter period Esoteric Buddhism, especially the result of the Sukṣma-yoga is important as it was devoted to the formation of practice system accomplishing Transit Body and Physical body into Sambhoga-kaya and Nirmana-kaya.

It is the Nagarjuna school that succeeded Jñānapada school's system and developed it into a well organized system of Tantric practices. It is Nagabodhi who as a member of Nagarjuna school wrote the *Commentary of Organizing Tantric Process*, which work epitomized the entire practice of the *Guhyasamāja-tantra*'s tradition reflecting new trends of Tantrism at that time

Tsong kha pa, who founded the Geluk sect of Tibetan Buddhism, wrote the *Commentary of Organizing Tantric Process* by Nagabodhi which developed his new theory on the 'Visualization of Developing Physical Mundane World', 'State of Intermediate Body after Death', and 'the Process of Reincarnation', but Tsong kha pa preserved the fundamental tradition of dual practices of Generation Stage and Completion Stage.

Key Word

Esoteric Buddhism, Tantrism, Tibetan Buddhism, Nagabodhi,

Tsong kha pa, Bardo, Adi Buddha

✎ 투고일자 2009.12.08 | 심사일자 2009.12.15 | 게재확정일자 2009.12.22